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공백 해소

남원시, 전북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료기관 최종 선정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6월 2일부터 남원의료원에서 평일 야간 소아과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정은 우선 남원시보건소가 2주 이상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심사 결과 보고 및 지정신청 요청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사업으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필수의료체제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료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 2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제공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해 신뢰도 높은 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원의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되어 향후 전일(주간+휴일) 진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남원시 전체의 필수 의료 기반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남원시 중정로 365)	기관명	남원백제약국 (남원시 용성로 102)
운영기간	2025년 6월 2일부터	운영기간	2025년 6월 2일부터
운영시간	평일 18:00 ~ 23:00	운영시간	평일·휴일 07:30~23:00 (365일 운영)
전화번호	(운영문의) ☎ 063-620-1118 (진료문의) ☎ 063-620-1138	전화번호	☎ 063-633-1233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6월 2일부터 남원의료원에서 평일 야간 소아과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남원시는 야간에 소아환자가 발생해도 진료기관의 부재로 타지역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 이용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남원은 물론 임실·순창·장수 등 인근 지리산권 주민들도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라, 시민 대상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으로, 시청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 시내 주요 전광판, 지역 학교·어린이집 대상 리플릿 배포, 지역 언론 기획보도 등 다채로운 홍보 전략

을 전개해 시민들이 제때 필요한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이들이 아픈 밤, 부모님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남원을 만들고자 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공공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개최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1회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민선식, 이하 진흥회)’를 개최하고,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 및 바이오 산업연구원 직원 신규 채용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진흥회는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VISION) 선포식에 대한 내용보고를 통해 남원시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추진계획과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식약처 인증시험 검사기관 지정 필수 인력 및 연구원 가능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 신규 채용에 대해 협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

순창군, 순창 키즈 테니스 페스티벌 등 3개 신규 대회 유치 확정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신규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순창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개최될 신규 대회는 ‘2025 순창 키즈 테니스 페스티벌’이다.

이번 대회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리며, 12세 이하 초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개인 단식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날 기간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테니스 관련 OX퀴즈, 서브 챌린지, 가위바위보 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유등면에 새롭게 조성된 유등 섬진강 파크골프장의 정



식 개장을 기념해 전국 규모의 동호인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7월에는 소프트테니스 종목 중 가장 권위 있는 ‘2025 대통령기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순창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군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신규 대회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종목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천만관광 달성과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임실군, 천만관광 실현 박차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인상 지원 등 추진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천만관광 달성과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한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로, 관내 관광지 방문, 관내 음식점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버스 한 대당 35만원으로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더

불어 5월과 6월에는 여행가는 달 연계 전북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매년 임실N치즈축제, 임실산타축제 시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숙박비를 할인 지원하고, 인플루언서 초청 캠퍼와 도내 대학생 임신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임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제 식음료 합동점검반 운영

남원시는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2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행사장 먹거리 부스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보관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전체 먹거리 부스 92개소를 중점관리업소(고기류 및 식사류 취급업소)와 일반관리업소(분식 및 음료 취급업소)로 구분 관리, 매일 영업 전에 점검을 추진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식재료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원료, 완제품의 보관기간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며,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홍보 및 음식물 재사용 금지도 지도할 예정이다.

보건소 최민자 보건지원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춘향제 기간 관광객이 축제를 즐기고 다시 찾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홍역 예방접종 당부

남원시보건소가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이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여행 후 홍역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해 국내에도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홍역 환자가 올해 4월 12일 기준 39명으로 발생했다.

보건소는 해외여행 또는 외국인의 모국 방문시 홍역 예방접종력(MMR) 확인 및 접종하도록 권고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출국 시기에 맞춰 접종력 등에 따라 1회 접종을 권고했다.

13세 이상 대상자 중 1967년 이전 출생자는 접종이 불필요하며, 1968년 이후 출생자는 홍역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 출국 4~6주전 최소 1회 접종을 권고한다.

또한,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성평등 실현 위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

순창군은 최근 청년문화센터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사업과 안건사업, 청년 및 농업 관련 사업 등 총 20건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계획서 내용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위해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의 정형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 사업 담당자들과 1:1 대면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대면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보다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